

연중 제28주일

제1독서 : 2열왕 5, 14-17

제2독서 : 2티모 2, 8-13

특 음 : 루가 17, 11-19

순정이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루가 17, 19)

강론

뭐가 그리 고마운지……

권이복 신부 / 순창 천주교회

홀로 서 계실 힘마져 없으신 어머님은 오늘도 조리대 모서리에 기대어 음식을 장만하신다. 그리고 식탁엔 앉지도 못한 채 부엌 바닥 쟁반에서 간신히 식사를 때우신다. 허나 어찌랴! 이렇게라도 먹고 살아야지……. “어머니! 생활비 떨어졌죠?” 염치 없이 묻는 질문에 대답은 여전하시다. “아니! 괜찮아!” 그래도 선심이나 쓰는 듯 “여기 오만원 있어요” 하며 달 넘어 지급된 생활비를 건네 드리면 “고마워요” 하시며 몇 억이나 되는 듯 한 번, 두 번, 세 번 고이 접어 두신다. 갑자기 밥알이 목구멍에 걸리는 것 같다. 괜한 김치 장사 한답시고, 나 먹고 살 뭇은 물론, 당신 잠수실 뭇, 그리고 당신 인건비까지 몽땅 길바닥에 깔고 다니는 줄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처지야 어떻든 그분은 계속 중얼거리신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무엇이 그리 감사로운지는 그분과 하느님만이 통하는 얘기이리라.

하느님! 이제 그분 말고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필요치 않기에 오직 그분만 믿고 사시는 분! 그러기에 모든 것 아니, ‘있음’ 그 자체가 그저 고맙고 감사롭기 그지 없으신 모양이다.

역시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다.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 학자, 사제, 회장, 사장-에게는 감추시고 이젠 나이 들어 ‘애’가 되어 버린 보잘것 없는 노파, -일자 무식, 이름 석 자조차 쓰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같은 사람들에게겐 나타나 보이시니…….

소리

위도참사 2년과 교훈

지난 10일은 위도에서 페리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형 사고에 정신이 없던 시기에 일어났던 페리호 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반성하게 해 주고도 남았다.

안전 불감증에 걸렸던 국민들에게 2백 92명이라는 고귀한 생명이 남긴 교훈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엄청난 인재(人災)에 우리가 과연 얼마만한 힘을 보탤 수 있었을까? 사고 직후에 정부와 국민들이 보인 태도는 단호한 것이었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단순한 것이었고, 모두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또한 유족들의 위로와 사고가 났던 위도의 종합개발에 대한 청사진도 발표,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유족들의 참담했던 심정은 어느 정도 위로가 됐으며, 화려하게 발표됐던 위도개발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페리호 사고가 잠잠해진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는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마포와 대구 가스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등 크고 작은 사고가 그칠 날이 없었다. 소위 ‘사고 공화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만 남겼을 뿐이다.

페리호의 엄청난 사고가 난 지 겨우 2년 여가 지났을 뿐인데 어느새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려 하고 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당시 유족들의 찢어질 듯했던 가슴속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도 그 악몽에 시달릴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아울러 희생자들의 명복을 두 손 모아 빈다. 囹

순정이 산책



성서교실 61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창세 45장)

유다의 말을 듣고 있던 요셉은 유다의 희생정신과 아버지께 대한 그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하여 울음이 터져 나온다. 어떤 의미에서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의 효심은 요셉의 것을 앞지르고 있는 것 같다. 요셉의 시험은 이제 끝났다. 그는 가족들만의 상봉을 위해 측근들을 모두 물리치게 한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의 고백은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상황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 아버지께 그토록 커다란 고통을, 야곱 가정에 비극을 안겨 주었던, 바로 그 장본인이 형님들의 눈앞에서 있다. “비극의 주인공인 아버지께서 분명 살아 계시다는 말이지요?” 요셉은 형들을 가까이 불러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게 해 주며, 다시 한 번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 “내가 바로 형님들이 에집트로 팔아 넘긴 아우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지도 신랄하게 비판하지도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다른 동기를 부여하여, 형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 준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 넘긴 것은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 가족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였다는 것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막강한 위치를 세 가지로 설명한다. ‘파라오의 어른’이라는 말은 ‘신의 아버지’라는 뜻의 파라오와 거의 비슷한 칭호로써 에집트의 고관을 가리킨다. ‘그 온 집안의 주인’이라는 말은 파라오 왕궁의 최고 관리인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에집트의 전국을 다스리는 자’라는 말은 에집트의 실제적인 행정 책임자를 뜻한다. 요셉이 에집트의 외정과 내정 모두의 실권자임을 과시하는 칭호들이다.

자신이 에집트에 노예로 팔린 사건에 대한 신학적인 해설과, 온 가족이 에집트로 이주해 와야 한다는 당위성의 설명 이후에, 비로소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의 목을 부둥켜 안고 운다. 그 다음 형들과 화해와 용서의 표시로 입을 맞춘 후, 서로 붙들고 운다. 그리고 나서 요셉과 형들은 마음의 긴장을 풀고, 용서와 애정의 표시로 대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다.

한편,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파라오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요셉

와 신하들이 기뻐하며, 특히 파라오는 요셉에게 마차를 보내어 형제들의 가족과 아버지를 모셔 오게 하라고 분부한다. 요셉은 명령대로 형제들에게 마차를 내어 주고, 여행길에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은 물론, 형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외출복 한 벌씩,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다섯 벌과 은돈 삼백 세겔을 준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보낼 선물도 마련해서 보낸다.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도중에 서로 다투지 말라고 당부한다.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서 에집트의 재상이 되어 있더라고 전한다. 야곱은 너무 뜻밖의 일이라 처음엔 믿지를 못하지만,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화려한 마차와 선물을 보고 믿게 된다. 막내 베냐민과 인질로 붙잡혀 있던 시므온을 포함하여 열한 명의 아들들이 무사히 돌아왔지 않느냐! 야곱은 혼잣말로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한다. 사실 요셉의 죽음은 야곱에게 평생의 한이 되어 마음 한구석에서 떠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 죽었다던 아들이 살아 있다니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신학적 설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느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은 이상 인간이 저지른 실수나 죄악에서도 선을 끌어내신다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게 하느님의 섭리요 사랑이다.

이 전
코아 에스에스 패션
· 로가디스, 이브생로랑, 위크엔드
· 버킹검, 아스트라, 빌드모아
· 런던포그, 크레센도, 포앤모아
정수천(서문)·강숙기(지다)
코아백화점 4층
☎ 86-2884, 80-1404

코아 삼익피아노
· 현금가 6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 각종 신용카드 현금가 할부판매
· 일반악기 전품목 할부판매 및 도소매
· 철저한 책임관리 및 사후 서비스
☎ 86-1181, 83-5332
호출기 015-670-1651

LG(금성)에어콘 총판
· 에어컨, 환온습기, 공기정화기
· 온풍기, 대형냉장고, 중앙집중식냉·난방
원종삼(빌리버)·원승연(도미고)
삼화공조 ☎(0652)251-0190~2
휴대폰 011-653-2346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서정우·이혜경(골리라)
북전주전화국←→법원 중간
☎ 253-3232

교리상식 23

로사리오 성월 ②

로사리오 기도의 내용과 영성

로사리오 기도는 '복음 전체의 요약'이며 주님 구원사업의 총합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로사리오 기도를 묵상하면서 깊숙이 들어 가게 된다. 따라서 예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로사리오 기도는 오히려 성모님을 슬프게 한다. 왜냐하면 성모님의 중심은 예수였고 성모님의 모든 것이 예수였기 때문에, 모든 기쁨과 찬미가 예수께로 향하는 것이 성모님이 바라는 소망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로사리오 기도를 바칠 때는, 각 단의 신비 내용을 진정으로 묵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면서 지향을 생각하거나 성모송, 주의 기도 등의 내용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지향은 묵상 전에 세우고 생각해야지 묵상중에 하면 역시 일종의 분심이 되는 것이고, 주의 기도나 성모송을 암송하는 것은 이런 간단한 내용의 기도를 반복하여 외움으로써 잡념을 쫓고 마음을 가라앉혀 기도와 묵상에 전념케 하려는 것이 지기도 내용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다.

로사리오 기도의 신학적 특성

로사리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룩하신 구원의 신비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기도이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이 부활하시어 산 이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모든 교리를 내포하고 있는 기도이다.

로사리오 기도는 복음서의 요약이며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역사, 고난을 받으심과 영광스러이 승리하신 모든 구원의 신비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그리스도의 구원사에 앞장 서서 그리스도를 도우시며 그리스도를 낳고 기르신 성모님 생애의 가장 주요한 기점이었던 '성모송'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천사의 인사를 통하여 하늘과 땅을 잇는 교량적인 표징을 드러내고 있고, 성모송을 단순히 성모께만 바치는 기도로만 알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로 알 수 있을 때에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대한 깊은 감명을 얻을 수 있다.

교구 소식

※ 전교주일 2차헌금 : 10월22일(일) 각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 1. 축! 견진 : 10월22일(일) 오전10시 연지동 성당
- 2. 교구장 사목방문 : 10월19일(목) 용머리 성당, 옥봉 성당
10월20일(금) 효자동 성당, 화산동 성당
- 3. 천호 피정 안내 : 10월17일(화), 주제-용서와 화해, 강사-최형락 신부, 10월 21~22일, 주제-오늘을 사는 신앙인, 강사-윤종대 신부, 문의 73-6600
- 4. 재무 평의회 : 10월17일(화) 오전10시 교구청
- 5. 성직자 모지미사 : 10월16일(월) 오전10시30분
- 6. 사랑의 다리 피정 : 10월31일(화) 오전10시 치명자산 성당, 준비물-미사도구, 점심, 접수마감-10월25일까지, 접수처-사회복지(☎ 84-5290)
- 7. 교도소사목후원회 월례미사 : 10월16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 기억할 사제 : 20일 김후생(바오로) 신부 12주기

※ 축! 영명 : 19일(십자가의 성바오로) 김준호 신부님

요십이 (1154) 김병오



천호성지 사무장 모집

1. 지원자격 : 영세한 지 5년 이상된 남자, 컴퓨터 유행형 및 운전면허 소지자 2. 제출서류 : 이력서, 본당 주임 신부 추천서, 세례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각 1통 3. 접수마감 : 95. 10. 30 (월) 4. 접수처 : 전주교구 사무처(☎ 85-0041) 5. 선발자는 면접 거쳐 개별 통보함.

김장 걱정 하세요? 3만원만 쓰세요. 정한 날 정한 시간, 댁까지 배달해드립니다!

고냉지 배추, 순창산 양근 고추, 심적산 지하 115m. 암반수로 담습니다. · 품목 : 배추김치, 알타리, 파, 각두기, 동치미 · 주문처 : 순창성당 영농조합 (0674)53-8040~1 성모회 52-1004 가톨릭농민회 부설 동산매장 (0652)212-7442

베소라 성서 피정

- 때 : 10월17일(화) 오전 9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회비 : 5,000원(중식포함)
- 모든 신자분들을 초대합니다.

예수그리스도의 고난회 성소 피정

- 때 : 10월21일~22일 오후 5시
- 장소 : 예수고난회 수도원(광주일곡동)
- 준비물 : 운동복, 목주, 필기도구,세면도구
- 회비 : 3,000원
- 문의 : ☎(062)571-5004, 8004

차량대여 및 임대전문 영업회사
(유) 국민렌트카
박 일 천(요한)
신역에서 진안선 중간 럭키아파트 앞
☎본사 : 242-4442, 242-4717~9
군산영업소 : (0654) 467-6578~9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ργαν,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 지도 담당
동서 관동로 다가고 입구
김태우(알폰소) · 황진숙(안젤라)
☎ 88-7717~8

교형 자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박진상 한의원
박진상
김정연(안젤라)
전주시 인후동 안골 사거리
(인후 성당 앞, 전북은행 옆)
☎241-5553, 242-5553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 제 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범영 배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연중 제28주일입니다.
- ◎ 주일헌금 및 교무금 납부에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자비의 모후Cu. 단장 결집: 한기성(레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연(아오스딩) 수고하셨습니다.
- 2. 감사합니다: 베 방지가-혼인용 카페트 기증
- 3. 부녀회 정기총회 및 야유회: 17일 전 8시 * 저녁미사 없고 새벽 6시미사 있음.
- 4. 모임: ①대건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여성연합회(18일 어머니미사 후) ③제수 형제회(21일 후 2시) ④꾸리아(22일) · 천사의 모후-공식미사 후 · 자비의 모후-후 2시
- 5. 축! 혼인: 22일 12시 신랑-임중빈(요한) 군, 신부-이미순 양
- 6. 금주 청소년: 중노 17, 18반 차주 청소년: 중노 19, 20반
- 지난주 봉헌금: 1,024,610원 □ 교무금: 1,205,000원

*** 서희동** 사 제 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1. 모임 안내: 성모회-10월15일(일) 공식미사 후, 장소-유아방
- 2. 청소년 성가 경연대회: 10월15일(일) 장소-윤호관
- 3. 초등부 남전주지구 체육대회: 10월22일(일) 장소-중앙국민학교
- 4. 피정 안내: 10월29일(일) 10시-12시 강사-법석규 신부님, 참가비-1,000원, 대상-사목회임원, 단장, 구역장, 레지오 단장, 부단장 * 대상자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성가 연습: 매주 토요일 10시30분, 장소-성전, 성가를 배우고 싶으신 분이나 관심있으신 분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6. 청소년: 금주-사랑의 샘 차주-상아탑
- 지난주 봉헌금: 1,006,440원 □ 교무금: 1,096,000원

*** 복자** 사 제 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이며 전교의 달입니다.
- 1. 가정에서 못 쓰는 성물(고상, 묵주, 성서, 성상, 상본 등)을 본당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2. 강당을 예쁘게 꾸며주신 교리교사님을 수고하셨습니다. (강당에 커튼을 해주신 이화원 그레고리오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 3. 오늘(15일) 공식미사 특별강론은 페루 선교사로 계시는 김희태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 4. 남전주지구 초등부 체육대회: 22일(다음주일) 장소-중앙국민학교 9시 성당에서 출발합니다.
- 5. 다음주일은 전교주일: 선교사들을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 6. 사목회 단합대회: 22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사목회 임원님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 7. 빠스카회: 오늘 공식미사 후
- 8. 성모회: 19일(목) 오전 10시 금주 전례: 해설-유두석, 독서-조운일 부부 봉헌-신대섭 가족 차주 전례: 허정식, 독서-정승관 부부 봉헌-구본창 가족
- 성당 청소년: 21일(토) 천사의 모후Pr. 자모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585,450원 □ 교무금: 1,766,000원
- 감사헌금: 중·고생들을 위한 감사헌금 300,000원(오덕순 사비나) 500,000원(김삼옥 클라라)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현

-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입니다(전교의 달)
- 1. 금주: ①사목회 정기총회-후 4시, 장소-강당(사목회 임원 및 제단체장, 구역장 참석바랍니다) ②바느질 성모Cu.-후 2시 ③청년회-후 8시 ④청소년 성가 경연대회-15일 오전 9시, 윤호관 ⑤특별강론-법석규(마리아) 신부님-새벽미사, 공식미사, 저녁미사 ⑥에비자 교리 개강-공식미사 후, 장소-강당
- 2. 레지오 간부학교: 14일, 21일, 28일, 11월4일(후 3시-6시) 개강 미사-성당 3. 성화회: 16일 후 7시. 4. 성모회 피정: 17일, 장소-용인 수련원, 7시 출발. 5. 빼엣다회: 18일(전 11시) 6. 성모성심회 야유회: 18일 장소-충무. 7. 초등부 남전주 지구 체육대회: 10월22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전주 중앙국민학교, 참가비-1,000원(도시락 지참) 대상-유치부~6학년 8. 초등부 성지순례: 29일 전 9시30분~후 5시(도시락 지참) 장소-천호성지, 대상-유치부~6학년
- 9. 빼엣다회 임원 개편: 회장-신옥철(가타리나) 부회장-변홍수(마리아) 총무-김진향(로사) 서기-김귀남(안나)
- 10. 차주: ①성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②전교주일 2차헌금 * 에비자 교리반 안내 * 화요일(오후 8시)-대학생, 청년반: 보좌 신부님 수요일(오전 10시)-노인반: 원장 수녀님 목요일(오후 8시)-직장인, 성인반: 본당 신부님 토요일(오후 4시)-중·고생반: 전례 수녀님 일요일(오전 9시)-일반인 남녀: 원장 수녀님

*** 상관** 사 제 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전교의 달)입니다.
- 1. 모임: ①새 영세자 모임, 성가대-공식미사 후 ②자모회-다음주일 ③장년회-14일(토) 저녁 8시, 성당 회합실
- 2. 감사: ①성전보수 신입 및 봉헌-김금자, 임재순(20만원) 강정순, 김월주, 황옥섭, 이순기, 남현준, 오성도(10만원) 익명(6만원) 유순금, 안복례, 성대직, 서정희, 김중화, 임찬성, 송 실, 이준희, 정찬수(5만원) 이수복(8만원) 문옥엽, 조조왕희, 현복선, 김 안나, 김홍곤, 윤귀자, 한동관, 김용곤(3만원) 장경애, 조덕순, 지용집, 김선자, 김순자, 이갑순, 진복래, 김순옥(2만원) 안정기(1만5천원) 박봉순, 박봉열, 양병옥, 박선순, 최순례, 이막내(1만원) 계-2,115천원, 누계-3,525천원 ②중·고등부 농구공 기증: 양수환 ③초등부 체육대회 간식: 최인규(3만원)
- 3. 10월 구역 모임: ①16일(월)-어두 ②17일(화)-신홍, 백암 ③18일(수)-원익암, 묘동, 계월, 마지 ④19일(목)-서강, 공기 ⑤20일(금)-내정, 수원지, 기타
- 4. 성당 청소년: 차주-천사의 모후Pr.
- 5. 차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강덕용 ②송정자 봉헌-최상운 가정
- 지난주 봉헌금: 358,100원 □ 교무금: 434,000원

*** 평화동** 사 제 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감삼근

- ◎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1데살 5, 17)
- 1. 96년도 사목계획서 제출: 각 분과장 및 제단체장님들은 29일까지 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 2. 추남대회: 22일 12시, 성덕다리(대추나무집) 모든 형제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 3. 전주교구 성령새신 전국대회: 23일 전 9시30분~후 5시, 윤호관
- 4. 제4기 레지오 마리아 간부학교: 21, 28일, 11월4일. 오후3시~6시. 각Pr.은 1명씩 의무 참여
- 5. 형제 기도회: 16일 저녁 8시30분, 8구역 7반 황의옥(파로)떡 1704호
- 6. 쉬는 교우 방문: 19일 전 9시-6구역 1반~6반
- 7. 교도소 사목후원회 미사: 16일 전 10:30 쉐타 3층
- 8. 성소후원의 날: 오늘 공식미사 후, 매미사 전후 회비 납부
- 9. 봉성제: 20일 전 8시(사무실에 미리 신청)
- 10. 회의: 임마누엘, 한빛회-오늘 공식미사 후 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성모회-18일 어머니미사 후 풍송회-22일 공식미사 후
- 11. 에비자 제2반 모임 안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교리반-31일 까지 사무실에 신청(신청서는 사무실).
- 12. 환영합니다: 전입해오신 교우는 22일 공식미사 후에 인사
- 지난주 봉헌금: 1,427,370원 □ 교무금: 2,075,000원